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인 내방가사: 화전가의 사례

서론

시가의 한 장르인 *내방가사*, 또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Song of the Inner Chambers”는 여성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크게 억압했던 한국의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양반 계층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던 매체이다. 비슷한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에 흔히 사용된 표현으로는 *규방가사*, 영어로는 “Song of Women’s Chambers”가 존재한다. 여성들¹에 의해, 여성들을 위해 쓰여진 *가사*에서 우리는 여성들의 다양한 작업, 문화, 예능과 기타 다른 일상속의 요소들에 관한 풍부한 서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말기의 양반 여성들이 생활하였던 환경에 대한 생생한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한 요소로는, 이러한 가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성 작가들의 내면 세계, 감정 및 생각들에 대한 진귀한 통찰들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대 이전의 한국 여성들에 대한 자료의 부족함을 고려할 때, 내방가사 노래들은 과거에 진행되었던 것보다 더 깊고 넓은 연구를 요하는 대단히 귀중한 문서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관한 연구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막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미하여 한국문학사의 한 장르로서 짧게 작성된 설명문 외에는 몇 편의 저술만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영문으로 작성된 연구 저서들 가운데에는 김기정의 저서 *고전한국문학 개론: 향가에서 관소리까지* 중 “출간되지 않은 시가: 규방가사” 장 (뉴욕: M. E. Sharpe, 1996년, 122-139 쪽), 이영희의 저서 *이데올로기, 문화 그리고 한 중 “내방가사” 및 “내방가사와 민요의 비교”* (서울: 지문당 출판사, 2002년, 61-72 쪽 및 83-87 쪽), 그리고 영기 김-르노가 편집한 *15 세기에서 20 세기까지의 창조적 한국 여성*에 수록된 본 저자의 에세이 “규방가사: 조선 말기의 여성문학” (뉴욕, 아몽크: M. E. Sharpe, 2003년, 142-162 쪽) 등이 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체크²에 의해 체코어로 전문이 번역된 “노처녀가” 또한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내방가사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초기 수십여 년 동안 집중적인 연구는 해당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故 권영철 교수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어 왔다. 해당 학자들은 대규모의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구적인 문서학, 문학 및 사회문화적 연구들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더욱 다양한 학계에서 내방가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내방가사를 향한 관심은 한국의 페미니스트 연구의 부흥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관련 진전에 힘입어, 내방가사의 사회정치적, 이념적 및 문화적 배경, 그리고 대표적인 내방가사 종류의 주요 특징 등이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방가사라는 풍부한 유산은 연구되어야 할 상당량의 자료와 토의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내방가사에 관해 학자들이 주로 가지는 두 가지 본질적 질문은 보편적인 내방 가사 및 그 세부 유형의 기원과 발전 양상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관한 연구가 난해한

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부 가사는 해당 여성의 친족, 주로 조부, 친부 또는 삼촌에 의해서도 창작되었다.

² 블라디미르 푸체크, “Zpěvy z ženských komnat: Píseň staré panny“, In *Jasná luna v prázdných horách. Korejské básnictví 14.-19. století*, 블라디미르 푸체크 편저, 프라하: 파세카, 2001, 134-156 쪽.

이유는 바로 작가, 시간, 장소 및 창작 목적이 알려진 시가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전문가들에 의해 편찬된 연구문헌³에서와 같이, 출처가 알려진 자료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학작품들이 창작된 시기의 구체적 상황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발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얻은 정보들을 향한 기민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론적 전제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내방가사 장르의 태동에 관한 기초적 견해들에 대해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며, 꽃구경을 위한 봄나들이를 주제로 지어진 내방가사의 세부 계열 중 하나인 화전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실시할 것이다.

내방가사 장르의 형성

내방가사 장르에 속한 가장 초창기의 시가로 간주되는 작품은 유명한 안동 권씨 가문의 권씨 부인이 1746년 지은 반조화전가이다. 해당 시가의 원문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학자는 내방가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인 18세기 중반 가사라는 큰 갈래의 세부 유형인 여성 시가로서 태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⁴ 또한 일부 학자들은 해당 장르의 기원을 그보다 더 이전 허난설헌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여류시인 허초희(1563-1589)가 쓴 첫 여성 가사들에서 찾고 있다. 두 편의 가사인 규원가와 봉선화가가 허초희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한편 소수의 학자들은 시인 이현보의 모친이(1527년) 가사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을 가장 먼저 창작한 여성 작가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⁶ 그녀의 시가는 아들이 동부승지의 자리에 오를 때 창작되었다.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18세기와 19세기 가사 작가들은 양반 출신 고관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였다. 해당 작가들은 긴 문학 작품들을 통해, 집을 떠난 남편 또는 친구를 향한 그리움 또는 부모와의 이별에서 기인한 자신들의 운명을 향한 탄식을 주제로 한 자탄가 등 여성시가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었다. 기타 주요 주제들로는 꽃놀이를 위해 떠난 봄나들이(화전가), 여행기록(기행가사) 및 훈계(계녀가) 등이 있었으며, 결혼한 여성이 시가의 가족들에게 보여야 하는 행동 계율 역시 이에 해당하였다.⁷

한국 문학사학자들은 내방가사의 형성과 발달이 가사 장르의 예술형식적 장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복잡한 한문을 이용하여 시를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필요로 하였다. 조선 시대(1392-1910)의 다른 국문 시가 장르였던 시조마저도 짧은 형태와 엄격한 구조로 인해 장기간의 수련을 필요로 하였다. 가사는 불규칙한 수의 행을 포함할 수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태를 띠어 창작하기에 더욱 편리하였다. 가사는 일정한 박자 형태를 띤 여러 행으로 구성된다. 한 행에 속한 각 구는 두 마디로 구성되며, 첫 마디는 3 또는 4 음보, 두 번째 마디는 4 음보를 지닌다. 서술과 서사의 특성을 지닌 장편 가사는 여성 시인들로 하여금 시조에 비해 넓은 관점에서 자신들의 삶에 관한

³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나정순 외, 도서출판, 2002.

⁴ 李源周, 「'雜錄'과 '反嘲花煎歌'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7,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80, 37-51 쪽.

⁵ 김기정, 고전한국문학 개론, 111, 132-136 쪽; James Hoyt, 활상하는 봉황과 뛰노는 용: 고전한국문학에 관한 역사조사, 지문당, 2000, 337 쪽.

⁶ 조운재, 「내방가사의 발생」, 『은천내방가사집』, 조애영 저, 금강출판사, 1971, 316 쪽.

⁷ 이러한 여성 가사의 종류들과 관련 연구에 관한 영문 개요는 다음을 참조할 것: 소냐 호이슬러, “규방가사: 조선 말기의 여성 문학,”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창조적 한국 여성, 김-르노 영기 편저, 뉴욕, 아몽크: M.E. Sharpe, 2003년, 142-162 쪽.

외적 환경과 내적 세계들을 더욱 용이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 (그리고 평민계층)에 부각된 가사 장르는 18세기 및 19세기 시적 표현에 관한 새로운 주제와 형태를 토대로 예술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더욱 인기를 끌었다.

또한 내방가사 장르의 형성은 문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조선 말기 (일반적으로 17세기에서 19세기로 정의됨)의 사회적 및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장르의 추가적인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한다.

내방가사 장르의 형성과 발전에 관여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및 정치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1.)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가정의 이상적 가치의 확산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관념의 형성 및 그 결과로 초래된 현모양처의 본모기를 여성들이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 2.) 여성들의 생활 환경에 일어난 변화, 즉 모계거주제에서 부계거주제로의 변화로 인해 공공영역에서의 여성들의 활동에 부가된 제약들과 양반가에서 강제된 내방으로의 은둔
- 3.) 가문과 사회에서 여성이 맡는 역할의 축소를 일으킨 혼례 의식, 제사 문화 및 법적 권리들의 변화
- 4.) 영남 지역의 낙향, 즉 문벌 다툼에서 패하여 관직을 박탈당함으로 인해 은퇴한 후 지방 사유지로 거처를 옮겨 지역 청년들을 가르치며 학문에 매진하였던 양반의 수 증가
- 5.) 양반 가문들 중 동일한 문벌에 소속된 가문들끼리 혼례를 진행하는 문화의 형성
- 6.) 상기 언급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더욱 증폭시킨 양반가들의 강한 문중 의식⁸
- 7.) 며느리의 지위 변화, 즉 곳간 열쇠를 물려주고 거주하는 방을 바꾸는 등의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승계되는 가정에 관한 책임⁹

첫 세 가지 요인은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에만 국한되도록 행동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마지막 두 요인은 여성의 자의식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사회에서 여성은 양반가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 일선에서 물러난 뒤 대가족의 살림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내방가사의 세부 계열과/또는 요소들에 따라, 상기 언급한 점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전근대적 시기의 여성 가사 장르의 구축에 관여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한국의 전형적인 정서인 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설움의 요소를 포함하는 내방가사인 자탄가 계열을 창작하는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¹⁰ 해당 특징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예시를 통해 후술할 것이다.

내방가사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의 복잡성은 우리가 여성들의 봄나들이에 관련된 사례들을 바라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봄나들이에 관련된 시가들은 화수가, 화류가, 꽃노래 등의 다양한 제목을 붙여 창작되었다. 이들은 화전을 즐기는 노래라는 뜻을 지닌,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제목인 화전가라는 이름으로 분류된다.

⁸ 權寧徹, 閨房歌辭研究, 二友出版社, 1980, 19-22 쪽, 51-62 쪽.

⁹ 白淳哲, 閨房歌辭의 作品世界와 社會的 性格, 博士學位 論文, 高麗大學校, 2000, 49-50 쪽.

¹⁰ 영문으로 진행된 연구의 경우: 이영희, 이데올로기, 문화 그리고 한. 고전 및 근세 한국여성문학, 지문당, 2002, 28 쪽, 135-136 쪽.

화전가와 봄나들이 풍습

화전가 계열은 현존하는 시가의 수, 주제, 문화적 배경, 창작 동기와 복잡한 구조 등의 특징으로 다른 계열들과 구분된다. 작품 수의 경우, 화전가는 계녀가 계열에 이어 〇두 번째로 많은 작품들이 있다. 여성 가사의 선구자적 연구자인 권영철 교수가 수립한 분류 체계에 따르면, 계녀가는 여성 가사의 원류이며 자탄가가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권 교수의 분류에 따르면 10 여 가지가 넘는 다른 계열들은 여성 가사의 진화 과정에서 아류로 파생되어 나왔다. 화전가 또한 아류 계열로 분류되고 있다.¹¹ 기존 연구들 중 하나에서, 본 저자는 이 정의를 검토하여 여성 가사의 진화 과정에서 화전가가 차지하는 위치를 재정의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¹² 화전가 노래들이 계녀가와 자탄가 계열과 유사점들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나, 계녀가 계열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진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특징적 요소들 또한 여럿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화전가는 내방가사 장르의 두 번째 원류를 형성했던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화전가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바로 계절별 주요 풍습들과의 연관성이다. 이 노래들은 음력 3월 또는 4월에 여성들이 아름다운 강산으로 나들이를 떠나던 풍습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한국 여성들은 참꽃 또는 두견화로도 불리던 진달래를 따서 찹쌀반죽을 동그랗게 빚은 후 꽃잎을 곱명으로 하여 참기름을 두른 후 부쳐낸 음식인 화전을 만들었다. 화전을 만들어 먹는 것은 봄나들이의 주요 절차 중 하나였기에, 이 행사는 화전놀이라고도 불리었다. 여성들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다. 유명한 놀이들과 다른 여흥들도 의식 곁에 기여하였다.

일견, 화전가 노래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봄 경치를 향한 감탄 내지는 산과 계곡들에서 거닐거나 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들은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이 일 년에 단 하루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탄식을 주로 표출하였다. 많은 경우 여성들은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함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상의 고단함과 슬픔을 이겨내고 같은 여성 집단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화전가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보면, 특히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더욱 복잡한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고대 사회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봄철의 다양한 풍습들과 의식들이 고대 한국 시기부터 존재해 왔다. 서기 1,000년, 즉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로부터는 그러한 풍습들과 의식들 중 일부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도 꽃을 보고 따던 풍습이 나타나 있다. 아마도 지역적 배경, 참가자 및 목적 등을 달리하는 다양한 풍습들과 의식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희소한 관계로, 가사에서 서술된 화전놀이가 이러한 풍습들과 의식들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주정원과 권영철이 편찬한 연구집인 화전가연구¹³에 수록된 대부분의 사례들은 화전을 만드는 것 외에도, 즉 술을 빚거나 여성들의 장식품을 만드는 등의 용도로 상기 언급된 꽃들을 이용하는 장면들을 통해 봄철 풍습의 여러 다양한 형태들을 나타내고 있다.

현존하는 자료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처음으로 화전이라는 단어에 관한 언어학적 단서를 제공한 것은 조선 초에 편찬된 세조실록(世祖實錄)이다. 세조 3년(1457년) 4월 22일의 기록을 보면, 한자를 이용해 역순으로 쓴 전화, 즉 꽃을 곱는다는

¹¹ 권영철, 『閨房歌辭各論』, 螢雪出版社, 1986, 9쪽.

¹² 소냐 호이슬러, 「봄철 풍습인 화전놀이에 관한 여성들의 노래」, 『M. I. 니키티나 (1930-1999) 80주년 기념 학술회 논문집』,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어문화연구소, 국립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2011, 93-110쪽.

¹³ 권영철, 『朱貞垣 公저, 花煎歌研究』, 螢雪出版社, 1981, 4-5쪽.

단어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전화가 동사-목적어 합성어를 나타내고 있는 후기의 문헌들, 즉 화전가들을 통해 우리에게 두 시대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¹⁴ 이에 관한 세조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掌令金命中將本府議啓曰: "有男女七八人乘醉, 彈琴唱歌, 相與戲舞, 行過闕門。 於大都中, 略無畏忌, 臣等在府聞之拿致, 請鞫之。" 傳曰: "大抵細民不憂愁則歌, 何敢使民困苦, 而不喜樂乎? 予於前日, 不禁細民會飲已下旨, 爾等何擅便拿致以啓?" 命中啓曰: "不啓拿致, 臣實有罪。" 又啓曰: "今年早曠, 兩麥未秀, 年甚凶歉, 物價踴貴, 臣以爲禁酒爲便。"

장령(掌令) 김명중(金命中)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남녀(男女) 7, 8 인이 술에 취하여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 더불어 희롱하고 춤추면서 대궐 문을 지나가며, 대도(大都) 가운데서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없으므로, 신(臣) 등이 사헌부(司憲府)에 있다가 이것을 듣고서 잡아왔으니, 청컨대 이들을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대저 미천한 백성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으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어찌 감히 백성들로 하여금 곤고(困苦)하고서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하겠는가? 내가 전일에 미천한 백성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교지(教旨)로 내렸는데, 그대들이 어찌 함부로 잡아와서 아뢰는가?" 하였다. 김명중(金命中)이 아뢰기를,
"성상께 아뢰지 않고서 잡아온 것은 신(臣)이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고는, 또 아뢰기를,
"금년은 한재(旱災)가 있어서 보리와 밀이 이삭이 패지 못하여 연사(年事)가 매우 흉년이 들고, 물건 값이 뛰어 오르니, 신(臣)은 술을 금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장령(掌令) 김명중(金命中)이 교지(教旨)를 거스르고 위복(威福)을 함부로 부려, 책문(責問)할 때에도 항거하여 쟁론(爭論)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 그것은 추국(推鞫)하여 아뢰라."¹⁵

더 나아가, 역사가들은 해당 사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傳旨義禁府曰: "掌令金命中違逆教旨, 擅作福, 責問之時, 抗拒爭論, 殊無敬心, 其推鞫以聞。" 時禁令頗闊, 巫風盛行, 都人士女, 群飲無厭。 每一置酒, 必大張樂, 比日暮罷歸。 男女歌舞, 呼喚街巷, 號太平樂事。 自貴家婦人亦多倣効, 大設帷帳, 悉集子婦, 爭豪競侈, 營辦極備。 杜鵑花開時尤多, 名曰煎花飲。

이때에 금령(禁令)이 자못 간략하므로 무당의 풍속이 성행(盛行)하였으니, 도성(都城) 사람의 남녀(男女)들이 때 지어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매양 한번 술자리를 베풀면 반드시 음악을 베풀게 되고 해가 저물어서야 헤어져 돌아갔다. 남녀(男女)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태평 시대의 즐거운 일이라고 불렀다. 귀가(貴家)의 부인들도 또한 많이 본받아서 장막을 크게 설치하고는 아들과 며느리를 다 모아서 호세(豪勢)와 사치를 다투어 준비하는 것이 매우 극진하였다. 두견화(杜鵑花)가 필 때에 더욱 많게 되니, 이름하기를 '전화음(煎花飲)'이라 하였다.¹⁶

1457 년의 세조실록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가진 여러 자료들을 제공한다. 표면적으로, 이 두 기록, 즉 두 사건들은 단순히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문단에서는 백성들이 모여 일으켰던 단일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양반 계층에서도 널리 실행하였던 풍습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 종교적 배경이 없는 단순한 여흥을 언급하나, 후자는 서술한 봄철 행사를 샤머니즘에 관련 짓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조시록의 편찬자들은 이 두 사건을 차례로 저술함을 통해 두 사례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¹⁴ 예를 들면, 李源周, 「'雜錄'과 '反嘲花煎歌'에 대하여」의 42 쪽에 인용된 嘲花煎歌 (1746)를 참조할 것.

¹⁵ 世祖實錄 7 권, 3 년 4 월 22 일. 朝鮮王朝實錄 전자자료 http://sillok.history.go.kr/id/kg_a_10304022_003.

¹⁶ 상기 문헌과 동일.

상관관계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들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은 봄나들이 특징들이 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1) 시기: 진달래(두견화)가 필 때
- 2) 장소: 진달래가 피는 곳, 즉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공간(장막, 대도 가운데)
- 3.) 여흥의 종류: 단체적 풍습
- 4) 주도계층: 양반가의 여성들 및 세민(백성)
- 5) 단체적 풍습의 참가자: 남녀(양반가 여성의 경우 한 가문의 구성원들; 백성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되지 않음)
- 6) 주요 활동: 화전을 요리하고 먹음, 술을 마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춤
- 7.) 이상적 상황의 묘사: 태평 시대¹⁷

다양한 맥락에서, 1457년의 세조실록 기록에 나타난 봄나들이의 특징들은 조선 말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봄철 행사였던 화전놀이에서 나타난 주요 활동들과 매우 유사하며 화전가와 같은 사료들에서 널리 서술되고 있다.¹⁸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의 점진적인 유교화로 인해 참가자의 구성에 변동이 일어났다: 조선 왕조의 말기에 접어들면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봄철 행사를 즐기는 일은 쇠락하였으며, 따라서 화전놀이의 구성원은 모두 같은 성별이었다. 또한 봄나들이는 단일 가문의 여성들만이 아닌, 한 개 내지는 다수의 마을에 속한 여성들을 포함하여 더욱 대규모의 참여 인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사회에서 발생하였던 양반 가문들의 집결을 반영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조실록에서는 거문고를 타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반면 화전가는 현악기의 반주가 없었다) 봄나들이 중 부르던 노래와 곡조에 대한 단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들 또한 현대에 전승된 많은 화전가들과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작곡된 것이었을까? 또는 매년 참가자들이 반복하던 특정 민요들과 춤들이 존재했던 것일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바로 세조실록의 편찬자들이 남녀의 봄철 행사와 술자리를 논의할 때 “무당의 풍속이 성행하였음”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전술한 행사들에 무당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는 편찬자들이 유교적 관점에서 박멸해야 할 “유해한 민간 신앙”에 “무당의 풍속”이라는 표현을 일반적 및 편향적으로 사용했던 것일까? 우리는 그저 이러한 의문들에 관해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록의 편찬자들이 무속 또는 여타 대중적 종교 신앙을 지칭했는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그들이 이러한 행사들에 종교적 배경이 자리하였다고 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예식, 정치 및 경제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사들을 향한 어사대의 검열에도 무속 또는 기타 종교적 배경들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봄철 행사들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특히 자연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풍습에 관해서는 여전히 연구해야 할 의문들이 다수 존재한다. 나들이의 대상이 되었던 계절은 이러한 풍습에 의식적 의미가 담겨있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 봄은 자연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 봄철의 보편적 개념을 고려할 때, 여성(비옥함의 상징)과 남성이 함께 모여 화전을 먹는 것(깨어나는 자연을 상징)은 봄의 창조적이지 생산적인 힘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화전 풍습의 기능과 의미에 관한 또 다른

¹⁷ 세조의 정치적 해석에 관하여는 저자의 다른 논문 「봄철 풍습인 화전놀이에 관한 여성들의 노래」 101 쪽을 참조할 것.

¹⁸ 權寧徹, 朱貞垣 공저, 花煎歌研究, 6-7 쪽.

단서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의 여성들이 이러한 모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그들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와 우주 전체에서의 세대 지속을 나타내었다. 러시아의 민족학자 R. Sh. 자틸가시노바는 음력 3월 3일에 진행된 축제 행사가 “(아이, 청년 및 노년을 아우르는) 모든 세대가 참가함에 따라 생명의 연속성을 확증하는” 의미를 지닌 일종의 의식으로 기능하였다고 주장한다.¹⁹

한국의 학자인 표인주는 이러한 봄나들이들이 특정 농업 의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²⁰ 해당 풍습을 진행한 시기, 즉 음력 3월은 긴 겨울철의 휴식이 끝난 후 농사일이 다시 시작하는 달이었던 점을 강조한다. 특히 청명과 곡우²¹ 절기는 밭갈이와 밭의 모서리를 보강하는 작업을 통해 벼농사를 준비하던 시기다. 또한, 곡우 절기에는 볍씨의 싹을 띄워 모내기를 준비하였다. 메마른 밭을 경작하는 것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표인주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영남 지역에 위치한 영천 인근의 농부들은 3월 3일에 춘경제를 지내어 모든 자연 현상들의 부활과 풍작을 기원하였다.²²

봄철 의식들이 자연의 다산력이 부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화전의 특정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긴 겨울이 끝난 후 자연을 따뜻하게 비추는 천체인 태양의 둥근 형상을 본따 화전을 둥글게 빚은 것이다. 또한 화전 위에는 다섯 개의 꽃잎을 지녀 태양광의 형태를 닮은 진달래를 올렸다.²³

과거에는, 화전을 먹는 행위 또한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16세기 시인이었던 임제 (1549-1587)가 쓴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쓴 화전회 라는 시는 호남 중부 지역에서 남성들의 봄철 풍류 중 창작되었다.

雙箸挾來香滿口
 一年春色腹中傳
 젓가락 집어 맛을 보니 향기가 입에 가득,
 한 해 봄빛이 배속에 전해지네.²⁴

이 시에서 임제는 세심하게 화전을 먹는 과정과 함께 이에 관여하는 감각들을 모두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화전과 봄빛은 동일시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빛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당일에 화자가 즐긴 햇빛이 아니라 일 년 내내 내리쬐 빛을 의미한다. 태양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화전을 먹음으로써, 화자는 일종의 특별한 기운을 받아들인다. 임제의 관념이 도교와 토속신앙 중 어느 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는가는 이 작품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 시가 16 세기의 남성에 의해 창작된 관계로, 조선 말기의 여성이 화전을 먹는 행위에 임제와 동일한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흥미로운 의문들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품 연구들이 필요하다.

¹⁹ *Kalendarnye obychai i obryady narodov vostochnoy Azii, godovoj tsykl* (모스크바: 나우카, 1989 년), 132 쪽.
²⁰ 표인주, 「영암군 구림리 세시놀이의 전승양상과 의미」, 『호남문화연구』, 28 호, 2001 년, 165-188 쪽
²¹ 청명과 곡우는 동아시아 농사달력에 존재하는 절기들이다. 그레고리력 달력을 기준으로, 각각 4 월 5/6 일 및 4 월 20/21 일에 해당한다.
²² 표인주, 「영남군 구림리 세시놀이」, 165 쪽
²³ 진달래 꽃잎을 얹은 화전의 사진은, 예를 들면 다음을 참조할 것:
https://de.wikipedia.org/wiki/Hwajeon#/media/Datei:Korean_pancake-Jindallae_hwajeon-03.jpg
²⁴ 홍만중(洪萬宗)의 순오지(旬五志), 上권에 수록; 權寧徹, 朱貞垣 공저, 花煎歌研究, 8 쪽을 참조할 것.

화전가에 나타난 명승지와 이상적 풍경들

화전가의 특징 중 하나는 조선 말기 여성들이 봄나들이 떠났던 장소들에 대한 풍부한 형성적 묘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노래들에는 축제의 여정과 최종 목적지들에 대한 지리적 요소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여성들의 나들이 장소가 일반적으로 인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존재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들이 선호되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지리적 명칭은 학암마을의 성지동과 하회마을의 팔선대 등 주로 성스러운 장소를 나타내었다. 여성들이 봄나들이로 자주 방문했던 다른 장소로는 유명한 불교 사원, 유교 사당 및 역사적 위인들의 기념비 등이 있었다. 즉 진달래꽃을 모으고 화전가를 짓는 풍습은 장소의 이동과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여성들은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남성들도) 각자의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세계를 벗어나 산과 계곡에 존재하는 성지로 향했던 것이다. 이들의 목적지는 매일의 삶에 부가된 의무들과 일상생활을 내려놓을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었다. 가사의 구절들에서 이 영역은 종종 “신선계” 또는 “서왕모의 터”로 명명되었다. 하회마을 출신의 여성이 팔선대로 연례 꽃놀이를 떠나 쓴 가사에서 찾아볼 수 있듯, 이 영적 세계는 영원을 향한 세계관을 드러낸다.²⁵

도입부 또는 구절들 중 일부를 통해, 많은 시가들은 실제로 도달한 (그리고 의식적 수단들을 통해 연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삶의 평안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성군 안강면 옥산리 양동이씨 부인이 쓴 화전가를 보도록 하자.

만화방초 자진곳이 태평계가 여기로다
청춘세월 오늘날이 춘만건곤 가득가득
퓌화원기 간곳마다 일낙풍화 향기롭다.²⁶

세상 만물의 완벽한 상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우주 조화의 성스러운 시간을 의미하는 태평(太平)이라는 주제가 반복되어 사용된다. 이 주제를 정형화된 표현으로 자주 사용한 전형적인 예시는 太平花煎歌로,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한다:

퓌평세 퓌평촌의 퓌평노름후여셔라
어와 남주들아 우리말숨 들어보소.²⁷

고향의 산들에 존재하는 이상적 풍경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중국 시인 도원명 (365?-427)의 유명한 작품에 언급된 도화원을 떠올리게 하였다. 이들의 시가들에서 복숭아꽃은 단순히 이상적 풍경의 비유적 표현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유교사회에 속한 여성으로서는 그저 꿈꾸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계층, 연령, 시간을 불문하고 모두가 사회적 계층에 얽매이지 않으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낙원에 대한 관념들을 촉발시켰다. 시간을 초월하여 복숭아꽃이 존재하는 봄철의 이상적 풍경은, 예를 들면 봉화군 해저리에 보존되어 있던 화전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해당 작품은 여성들이 설움을 어떻게 달렸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도입부에서 화자들은 서러운 삶을 짙막하게 떠올리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응시하여 주의를 돌림으로써 재빨리 슬픈 상념을

²⁵ 해당 시가의 영문번역본은 김성균, 하회마을: 한국경치의 미학, 박사학위 논문,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8, 59 쪽을 참조할 것. 1931 년경 창작되었음.

²⁶ 權寧徹, 朱貞垣 공저, 花煎歌研究, 99 쪽.

²⁷ 權寧徹, 閨房歌辭研究, 二友出版社, 1980, 127 쪽.

기억에서 지운다. 인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간 뒤, 화자들은 주변을 둘러보는 가운데 자연과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뚜렷한 차이를 날카롭게 인지한다. 놀랍게도, 이들의 본질적 진리에 대한 이해는 사방에 존재하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촉진되며, 일련의 뚜렷한 시각적 조각들을 통해 이에 도달하게 된다. 먼저, 화자의 시선은 동쪽과 서쪽을 향한 후, 이러한 대칭적 방위를 바라보는 행동은 북동쪽과 남서쪽에서 다시 반복되는 가운데 남서쪽 방위가 뚜렷하게 강조된다.

삼삼오오 짝을지어 압해서고 뒤에서서
 일보일보 올라간이 상상봉이 여기로다
 삼얼씩고 숨얼시여 사방경기 둘러보이
 꽃천피여 화산이요 입편피여 청상이라
 산언첩첩 노파잇고 물은중중 흘러가네
 동편얼 바라보이 학가산이 소사잇고
 서편으로 도라보이 나부산이 안저잇다
 동북어로 소식산은 우중의 성이되고
 서남으로 바라보이 연천슈가 흘러잇고
 서남으로 낙동강은 구비구비 흘러가네
 산천경치 그만두고 동내구경 후여보시
 천운만묘 고락싱애 바라보기 노연후다
 우리동니 바라보니 이화도화 만발홀새
 흥흥씩씩 난만후니 화중천지 여기로다
 경기조흔 이강산의 만학천봉 꽃치피여
 가지가지 봉첩이요 나무나무 춘풍이라
 이리가도 꽃속이요 저리가도 꽃속이라.²⁸

종종 여류 가사 작가들은 자연 경관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아름답다고 노래하거나 역사적 문헌에 그 역사적 중요성이 언급된 중국의 명소의 요소와 비교한다. 다음의 시가에서는 특히 중국의 심상들을 풍부하게 인용하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시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연 경관을 향한 관찰과 시적 사색은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며 (좌우풍경 둘러보니) 시작한다.²⁹ 이 시가에 나타난 여성들은 단순히 자연의 좋은 경치에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심지어 윤리철학적 의문까지 반영한다. 이 여성들에게 고려 왕조 말기의 학자였던 길재가 은거하였던 금오산은 상 왕조의 쇠락 후 백이와 숙제 형제가 은둔하였던 장소로 알려진 수양산을 닮은 장소로 간주되었다. 고전 중문학과 국문학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요소인 수양산을 언급하며, 여성들은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충(忠)을 생각하였고, 이토록 높은 도덕적 기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예시가 자신들의 터전 인근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향토문화적 전통을 중국의 것과 동격으로 놓음으로써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좌우풍경 둘러보니 수양같은 금오산은
 충신이 먹었거늘 어찌저리 푸르렀으며

²⁸ 權寧徹, 朱貞垣 공저, 花煎歌研究, 94 쪽. 해당 연구의 저자들이 언급하듯, 김중건 소장본.

²⁹ 중국의 천문학 관념에 따라, 좌측은 전통적으로 동쪽에 해당하고 우측이 서쪽에 해당하였음.

...

한없이 좋은경을 일안에 다들이니
저높은 백운산은 적송자의 노든댄가
반석우에 바둑판은 락서격을 버려있고
유수한 황학동은 서왕모 있든댄가
청계변 복숭아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계 험없이 다즐기니
소선의 적벽인들 이에서 더할소냐
리백의 채석인들 이에서 나올손가
화간에 버려앳아 서로보며 으른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경을 모를소냐
규중에 썩힌간장 오늘이야 쾌한지고
흥금이 상연하고 심신이 호탕하여.³⁰

평상시의 환경과 일상의 직무로부터 해방된 특별한 공간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처한 입장에 대해 생각하며 자연과 우주와의 통합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자신들 또한 남성과 동일한 인격체라는 인식과 자의식을 크게 함양할 수 있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중국의 문학사 그리고 미학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을 드러냄으로써, 여성들은 스스로를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 놓았다. 상기 인용한 시가의 마지막 행에서 볼 수 있듯,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유교 군자들의 주요 자질로 여겨졌던 아름다운 풍경을 향한 감상을 자신들 또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주장하였다. 최소한 봄나들이 중에는 사회가 그들에게 부과하였던 부당함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카타르시스를 찾기 위한 문학적 도구로서의 화전가

본 논문의 첫 부분에서 언급하였듯, 여성으로서 태어났다는 불운에 대한 탄식은 연구자들이 자탄가, 또는 신변탄식가로 분류한 가사 유형의 특징이자 두드러진 요소이다. 동료 여성들과 함께 자신들의 씩씩한 감정들과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여성들은 고통을 벗어나 일말의 안도감을 얻을 수 있었다. 자탄가에 관한 연구에서, 이영희는 슬픔을 달래는 이러한 과정이 한이라는 정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무속적 관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³¹

이러한 탄식은 화전가에서도 흔히 드러나는 특성으로 자리잡았다. 자연에서 연회를 벌이는 중 여성들은 자신들이 품은 의문들, 겪어온 슬픔과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즉석에서 또는 귀가한 후에 시가로 창작하였다. 슬픔을 구전과 서면으로 표출하는 행동은 분명 여성들에게 있어 카타르시스적 역할로 자리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1746년 안동 권씨 부인 (1718-1784)이 지은 반조화전가에서 발췌한 다음의 시구를 보도록 하자:

하늘히 무디후여 녀신으로 마련후니
아모리 애돌으들 곳쳐다시 되일손가
심규의 드러안자 옥뭉로 봉위되여

³⁰ 가사집, 현중호 편찬, [윤석범과 박현균 윤색], 조선고전문학선집, 평양: 문예출판사, 1985, 477-478쪽.

³¹ 이영희, 이데올로기, 문화, 그리고 한, 28쪽, 135-136쪽.

녀형을 뭉게땀고 방격을 힘느스더니³²

흥미롭게도, 보존되어 온 화전가 중 가장 초창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시가에서, 탄식은 단지 몇 구만을 차지한다. 그보다 훨씬 많은 분량은 아름다운 자연을 향한 찬사에 할애되었으며, 여기에서 권씨 부인은 아매, 홍금장, 도리화 등과 같이 동아시아의 시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한자어를 주로 사용한다. 권씨 부인이 중문학에서 파생된 유명한 시상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시가에 드러난 예술적 경지는 그녀의 걸출한 태생과 가문 배경을 드러내는데, 권씨 부인은 권충재의 후손인 권매 (1697-1730) 와 풍산김씨 부인 (1691-1736)의 외동딸이었다. 또한 권씨 부인의 남편인 이중실은 저명한 유학자인 이황 (1501-1570)의 후손이었다.

동군이 유정후여 삼수월을 모라오니
원근 아매예논 홍금장을 들어잇고
촌변의 도라화논가디마다 식을 시디여
사창안 부녀흥을 제흔자 도도논디

더욱 중요한 사실은 권씨 부인이 위안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도로써 반조화전가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웃음을 통해 삶의 고난과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초래된 좌절감을 이러한 방법으로 방출하는 것은 (미하일 바흐친의 저서에 드러난 바와 같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유럽 문학에서 해학적 요소들이 수행한 기능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³³

권씨 부인의 시가 중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시가가 창작된 당시의 상황을 약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씨 부인은 28 세에 그녀의 6촌인 홍원장이 쓴 풍자적 시인 조화전가에 답하기 위해 이 시가를 창작하였다.³⁴ 시가의 말미에 나타나 있듯, 권씨 부인을 포함한 여성들은 좋지 못한 상황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나들이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반대로 남성들은 자신들의 나들이에 대해 말을 앞세웠으나,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역경을 이겨내는 여성들의 능력과 힘을 시샘하여 조롱하기 시작했다. 여성들과 남성들이 서로 약을 올리는 상황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무리의 대표들이 서로에게 상반된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먼저, 홍원장이 다음과 같이 시작하였다:

어와 가쇼 | 로다 우리일 가 쇼 | 로다
수삼월 경영흔일 허수공논 되거고야
춘광을 원망하고 풍경을 일을삼아
한미슈 의디후야 춘쇼식 부라더니

그는 자기비판적 가사를 일부 표출한 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여성들의 나들이가 자연을 상하게 한다며 여성들을 희롱한다:

³² 이후 내용은 李源周, 「'雜錄'과 '反嘲花煎歌'에 대하여」, 37-51 쪽을 참조할 것.

³³ 해당 저서의 영문 번역본은 다음을 참조할 것: 미하일 바흐친, 라블레와 그의 세계, H. 이스볼스키 역, 블루밍턴: 인디애나대학 출판사, 1984.

³⁴ 이후 두 시가들은 1781년 “잡록(雜錄)”에 필사되어 출간되기 전 수정 및 편집되었음. 李源周 저, 「'雜錄'과 '反嘲花煎歌'에 대하여」, 46-47 쪽.

산녕도 녀성을내고 하빅도 괴롱후니

...

청강의 여홀소리 격분후여 슬피울고
당저의 나논풀이 실식후여 푸루거늘
무뎡놀난 산도들이 디디기 고이후라
동뒤에 벽도회논 피다가 반만웃고
명전의 양뉴디논 보내고 춤을추니
그형추 불긴훈줄 초목도 저러커든
유식군직야 비웃기 고이후라

이에 권씨 부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어와 남주들아 녀주롤 괴롱마오
남주일 가 쇼 | 로다 우리보매 우웁수의
멋돌을 경영후며 허송광음 ?이업니
적으나 꽤남주면 괴아니 쉬울손가
헛무옴 다달히며 이번용의 못후여셔
부녀일힘의 암암히 불워후니

권씨 부인은 더 나아가 자신의 시가에서 학업에 힘써야 하는 본분은 소홀히 한 채, 여성들의 무해하고 순수한 여흥을 향해 비웃음으로써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남성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던진다.

너모들 룡마오 남주슈치 쏘잇누니
얹히논 수셔삼경 것히논 제주빅가
위인도 경제술이 다주어 버러거늘

시가 말미에서 권씨 부인은 남성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를 준비하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여성의 자기 주장에 관한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시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세속의 엄격한 예절에서 벗어난 화전놀이의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을 더욱 자유롭게 부를 수 있었으며, 심지어 사회에서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에 도전하기까지 나아갔다. 남성을 향한 여성들의 장난은 그들로 하여금 일종의 힘을 획득하도록 도왔을 것이 분명하다. 반면, 의무를 다하기 위한 남성들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비판한 내용에 중점을 둘 경우 여성들은 남성들을 가르치고 가문의 유익을 위한 올바른 행동들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즉 남성들 또한 여성들의 약점에 대해 조롱함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맡은 책임을 기억해 낼 것을 충고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녀가와 유사한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시적 대화의 풍자적 형태는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로 하여금, 일상이라는 또 다른 상황에서는 결코 하지 못했을 험한 표현조차 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화전놀이의 보호받는 분위기는 그들로 하여금 상대 성별을 향한 본인들의 생각들과 의견들을 제약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중국에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권씨 부인과 그녀의 6촌에 관련된 사례로부터 볼 수 있듯, 화전놀이의 상황 중 창작된 그러한 풍자적 시가들은 본래 남녀간에 교환되는 형태를 지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대화문들은 주로 모녀 또는 고부간, 즉 상반된 연령 또는 계층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주고받는 식으로 변화하였다.³⁵ 이 대화문은 또한 고령의 여성들에게 장난을 치고 비판한 젊은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을 놀리며 책망한 여성들의 단편들을 포함한다.

시가의 형태를 띤 이러한 풍자적 대화들이, 농산물의 공급이라는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화합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세계와 우주가 상호간에 의존하는 통합적 구성 요소들로 여겨지던 전근대 시기에는, 사회의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화전가에서 볼 수 있듯, 여성들은 이러한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동시에, 높은 예술적 아름다움을 지닌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맺음말

내방가사는 많은 요소들을 통해 우리에게 여성들이 어떻게 가사 장르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로 소통하고 억압적 사회 환경 속에서 일상의 염려로부터 위안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해주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저자는 내방가사 장르, 그 중에서도 주요 계열 중 하나인 화전가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개요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봄나들이 풍습과 이에 관한 요소들의 의식적 중대성에 더욱 긴밀하게 연관지음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화전가의 고유한 역사와 특징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이 여전히 계녀가, 탄식가와 기행가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화전가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추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iterature:

Bakhtin, Mikhail. *Rabelais and His World*. Trans. by H. Iswolsk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Chu, Chǒngwǒn. *Hwajǒn ka yǒn'gu – Kyubang kasa zhangrǔ-e issǒsǒ*. M.A. thesis. Hyosǒng yǒja taehakkyo, 1977.

Haeussler, Sonja. “Kyubang kasa: Women’s Writings from the Late Chosǒn.” In *Creative Women of Korea. The Fifteenth Through the Twentieth Centuries*. Ed. by Young-Key Kim-Renaud. N.Y., Armonk: M.E. Sharpe, 2003, pp. 142-62.

_____, “Sozdanie i sokhranenie *kyubang kasa* v sovremennoy Koree: Sudba traditsionnovo zhanra v bystro menyayushtshikhsja sotsialno-kulturnykh usloviyakh (Creating and Preserving *Kyubang kasa* in contemporary Korea: A traditional genre in a rapidly changing socio-cultural environment).” *Vestnik tsentra koreiskovo jazyka i kultury*. Vol. 9. Sankt Petersburg: Publ. House of the University of Sankt Petersburg, 2006, pp. 83–97.

_____, “Zhenskie pesni v svyazi s vesennim obryadom *hwajon nori* (Women’s Songs related to the Spring Custom *Hwajǒn nori*).” *Proceedings of the Academic Readings Dedicated to the 80th*

³⁵ 박경주, 「화전가와 여성기행가사의 놀이와 여행체험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34 권, 2017, 133-165 쪽.

Anniversary of M.I. Nikitina (1930–1999). Sankt Petersburg: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PbSU, 2011, pp. 93–110.

Kalendarnye obychai i obryady narodov vostochnoy Azii, godovoj tsykl (Annual Customs and Rituals of the People in East Asia, the Year's Cycle). Ed. R. S. Dzharylgasinova and M.V. Kryukov. Moscow: Nauka, 1989.

Kasa chip (Collection of Kasa). Ed. by Hyön Chong-ho, with a popularized version in modern Korean (*yunsaek*) by Yun Sök-pöm and Pak Hyön-gyun. *Chosön kojön munhak sönjip* (Collection of Selected Works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P'yöngyang: Munye ch'ulp'ansa, 1985.

Kim, Kichung.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From Hyangga to P'ansori*. New York: M.E. Sharpe, 1996.

Kim, Sangil. "Hwajön kagye kasa-üi yuhyöng punsök (An Analysis of Kasa Types of the Hwajön ka Line)." *Taegu ömun nonch'ong*. Vol. 13, Taegu: Uri malkül hoe, 1995, pp. 213-29.

Kim, Sung-Kyun. *Winding River Village: Poetics of a Korean Landscap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8.

Kwön, Yöngch'öl. *Kyubang kasa kangnon* (Detailed Discussion of *Kyubang kasa*). Seoul: Hyöngsöl ch'ulp'ansa, 1986.

_____, *Kyubang kasa yön'gu* (A Study of *Kyubang kasa*). Seoul: I-u ch'ulp'ansa, 1980.

_____, ed., *Kyubang kasa I* (*Kyubang kasa I*). Söngnam: Han'guk chöngsin munhwa yön'guwön, 1979.

Kwön, Yöngch'öl and Chu Chöngwön. *Hwajön ka yön'gu* (A Study of *Hwajön ka*). Seoul: Hyöngsöl ch'ulp'ansa, 1981.

Kyubang kasa-üi chakp'um segye-wa mihak (The Literary World and Aesthetics in *Kyubang kasa* Works). Ed. by Na Chöngsun et al., Seoul: Tosö ch'ulp'an, 2002.

Lee, Younghee. *Ideology, Culture, and Han. Traditional and Early Modern Korean Women's Literature*. Seoul: Jimoondang Publ. Co., 2002.

Pak, Kyöngju. "Hwajön ka-wa yösöng kihaeng kasa-üi nori-wa yöhaeng ch'ehöm-e nat'an an yösöng üisik pigyo (A Comparison of Women's Consciousness Expressed in Entertainment and Travel Experiences in *Hwajön ka* and Women's Travel *Kasa*)." *Han'guk kojön yösöng munhak yön'gu*. Vol. 34, 2017, pp. 133-165.

_____, "Namsöng chakka-üi hwajön ka-e kwanhan ilkoch'al – yössä-kwa-üi üisa sot'ong yokku-e chumokhayö (A Study of a Male Author's *Hwajön ka* – Focusing on Motives of Negotiating with Women)." *Han'guk önö munhak*. Vol. 47, 2001.

_____, "Pan/Cho hwajön ka kyeyöl kasa-e taehan koch'al (A Study on Kasa of the Pan/Cho *hwajön ka* Line)." *Kungmunhak yön'gu*, Vol. 3. Söul taehakkyo kungmunhak yön'guhoe, 1999.

_____, "Sangsim hwajön ka'-üi yeoesöng-e taehan koch'al (A Study of the Exceptional Character of *Sangsim hwajön ka*)." *Sönoch'öng ömun*. Vol. 28. Söul taehakkyo kugö kyoyukkwa, 2000.

Paek, Sunch'ol. *Kyubang kasa-ŭi chakp'um segye-wa sahoe-jök sŏnggyŏk* (The Literary World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Kyubang kasa* Works). Ph.D. thesis. Koryŏ taehakkyo, 2000.

_____, "Kyubang kasa-ŭi munhwa-chŏk ŭimi-wa kyoyuk-chŏk kach'i – hwajŏn ka-rŭl chungsim-ŭro (The Cultural Meaning and Educational Value of *Kyubang kasa* – Focusing on *Hwajŏn ka*)." *Kugŏ kyoyukhak yŏn'gu*. Vol. 14, 2002.

_____, *Mundaphyŏng kyubang kasa-ŭi ch'angjak hwan'gyŏng-kwa chihyang* (The Background and Intention of Creating *Kyubang kasa* in Dialogue Form). M.A. thesis. Koryŏ taehakkyo, 1995.

P'yo, Inju. "Yŏngam'gun Kurim-ni sesi nori-ŭi chŏnsŭng yangsang-kwa ŭimi (Transmission and Meaning of the Seasonal Entertainment in the Village Kurim in Yŏngam County)." *Honam munhwa yŏn'gu*. Vol. 28, 2001, pp. 165-88.

Sejo sillok (Annals of King Sejo). Sejo 3[1457]/04/22 (ŭlmyo), #3. *Chosŏn wangjo sillok*. http://sillok.history.go.kr/id/kg_a_10304022_003.

Yi, Tongyŏn. "Hwajŏn ka-rosŏ-ŭi 'Pan cho hwajŏn ka' (The *Pan cho hwajŏn ka* as a *Hwajŏn ka*)." In *Kyubang kasa-ŭi chakp'um segye-wa mihak* (The Literary World and Aesthetics in *Kyubang kasa* Works). Ed. by Na Chŏngsun et al., Seoul: Tosŏ ch'ulp'an, 2002, pp. 11-30.

Yi, Wŏnju. "'Chamnok'-kwa 'Pan cho hwajŏn ka'-e taehayŏ (About 'Various Records' and 'Answer to the Mocking on Spring Outing')." *Hangukhak nonjip*. Vol. 7. Taegu: Kyemyŏng taehakkyo han'gukhak yŏn'guso, 1980, pp. 37-51.

Bakhtin, Mikhail, *Rabelais and His World*. Trans. by H. Iswolsk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